

2017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5	1	5	4	1	3	5	2	10	3	2	4	1	4	3	2	3	5	3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노자의 이상 사회 이해하기
대화에서 스승은 노자이다. 노자는 인위적인 규범을 거부하고 무위자연을 추구하였다. 그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2. [출제의도] 순자와 맹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순자, 율은 맹자이다. 순자는 악한 인간의 본성을 성인이 제정한 예와 법도로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맹자는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으며, 교육과 수양을 통해 선한 본성을 확충할 것을 주장하였다.
3. [출제의도] 불교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불교 사상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물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착이나 무명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같은 칸트이다.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 비롯된 행위나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이다. 그는 자연적 경향성이나 유용성을 고려하여 행위를 한 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5.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다. 그는 덕을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누고, 품성적 덕인 중용을 갖추려면 실천적 지혜를 바탕으로 좋은 행동을 습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도덕적 행위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위의 실천을 위한 의지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6.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단칠정론 비교하기
같은 이황(李滉), 율은 이이(李珣)이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연원이 다르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라는 감정이 모두 기에서 발한다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했다.
7.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사상 비교하기
같은 에피쿠로스, 율은 스토아학파의 입장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보고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으며, 궁적

인 삶에서 벗어나 작은 공동체에서 우정을 나누며 살 것을 주장했다. 이에 반해 스토아학파는 우주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보고 필연적인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금욕적인 삶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8.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사상이다. 장자는 모든 사건이나 사물을 도(道)의 관점에서 보면 평등하며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차별이나 분별 의식에서 벗어나 제물의 경지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 율은 소크라테스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진리가 개인의 경험이나 유용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반대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선에 대한 지식이 곧 덕이며, 이러한 덕을 통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지덕복합일설을 주장했다.
10. [출제의도] 원불교와 중산교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원불교, 율은 중산교이다. 원불교는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으며, 일일상을 진리로 믿고 수행함으로써 일체의 차별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낙원 세상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중산교는 전통적인 교유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재해석하고, 해원상생(解冤相生)과 후천개벽을 통해 신분 질서와 남녀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다.
11. [출제의도] 플라톤의 사상 이해하기
(가)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이다. 플라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 본분에 맞는 덕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가로 낱말 (A)는 정명, (B)는 집의(集議)이다.
12. [출제의도]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데카르트, 율은 베이컨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론을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제인 사유의 제1원리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성적 추론을 통해 자명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베이컨은 실업권과 편견을 타파하고, 감각과 경험을 통한 실험과 관찰에 의해 자연의 일반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13. [출제의도] 성리학파 양명학 비교하기
같은 주희, 율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선한 본성[性]을 천리[理]라고 본다. 그는 모든 사물은 이(理)를 지니고 있으며,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왕수인은 마음[心]이 곧 이(理)이므로 사욕을 극복하고 양지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휘하면 이론적 학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과 성리학 비교하기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그는 성리학적 인성론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嗜好)라고 보았다. 또한 인간이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自主之權]를 지니고 있어 선행과 악행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인의예지의 사덕은 천리(天理)가 아니라 행위의 실천에 따라 얻어지는 결과라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스피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스피노자의 주장이다. 그는 자연이 곧 신이며 유일한 실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자

연은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이며, 이러한 자연의 필연적 인과 관계를 이성적으로 통찰하고 관조함으로써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공자의 사상 이해하기
대화의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고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의 회복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치란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예악(禮樂)을 바로 세워 형벌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덕치(德治)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17. [출제의도] 위정척사와 동학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이항로, 율은 최제우이다. 이항로는 성리학적 이념과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여 외세에 대응하고 사학(邪學)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최제우는 외세에 반대하는 민족 주체 의식을 보이면서도 당시의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거부하고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아퀴나스의 주장이다. 그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신앙과 이성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현세의 삶은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 단계에 불과하여 완전한 행복은 이성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벤담, 율은 밀이다.功利주의자인 벤담과 밀은 공통적으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면서 개인적 쾌락과 사회적 쾌락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벤담은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같으며 양적인 차이만 존재한다고 본 반면, 밀은 쾌락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육체적·순간적인 쾌락보다 정신적·지속적인 쾌락이 질적으로 고상한 쾌락이라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사상 비교하기
같은 원효, 율은 지눌이다. 원효는 일심(一心)을 바탕으로 모든 종파와 논쟁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화쟁(和諍)을 주장하였다. 지눌은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우쳤더라도 자신의 습기(習氣)를 제거하기 위한 점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